

“참된 나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다”

해외석학, 무금선원서 4박 5일간 화두정진 들어가

백담사로 가는 길은 수행의 길과 같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굽이 굽이 백담계곡길을 다리가 부서지라 걸으면 탁 트인 백담사가 남자들을 기다린다. 무더위를 뒤로하고 전세계 불교 석학들이 설악산 자락, 백담사에 모여 화두정진에 들어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학연구소(소장 중호)는 8월 15일 백담사 무금선원에서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간화선 실참수행회를 가졌다.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해외석학 20여 명이 모였다. UCLA 로

버트 버스웰 교수, 스미스대 피터 그레고리 교수, 테네시대 미리엄 레버링 명예교수 등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간화선 실참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화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연구는 둘째 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참나를 찾기 위함이었다.

4박 5일간의 이 과정에는 무금선원장 신흥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종호 스님도 참석해 이들을 이끌었다.

지도법사인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간화선 화두 법문을 시작으로 진행된 수행 실참은 조사어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또 빠른 의단(疑團) 형성과 지속을 위해 방선(放禪) 시간없이 진행됐으며 수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과 말이 금지됐다. 매일 저녁에는 소참법문이 내려져 각 경계에서의 극복방법과 화두타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①



②



③

① 입재식에서 참가한 해외석학들이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②이날 입재에는 해외 석학을 비롯한 20여 수선남자가 참여했다. ③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무금선원장 신흥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이 입재식 후 간화선 활성화와 세계화에 대한 답사를 나누고 있다.

수불 스님 화두법문

“오직 모를 뿐, 갑갑함 느끼는 것이 인연”

이날 수불 스님은 정진에 앞서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뒤 ‘무엇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가’는 화두를 내렸다.

수불 스님은 “잠과 망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 벽을 뚫기 위해 더 치열히 정진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다음은 수불 스님의 간화선 화두법문 전문이다.

화두든 목적은 화두를 통해 정신적인 벽을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화두가 제시되면 바로 정신적인 벽을 느껴야 의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큰 가마솥에 물을 넣고 끓일 적에 물 온도를 100도로 끓을 때까지 풀무질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50~60도까지는 쉽게 물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90도를 넘어 100도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짧은 시간에 100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보고 듣고 느끼면 됐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톱겨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가.’ 마음, 손가락, 스님이 시켜서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이 하는 것은 왜 아니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붙인 것이 마음입니다. 손가락이나 내가 한 것이 왜 아니냐. 손가락도 나한테 딸린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 스스로 이렇게 톱겨지도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했다고 해야겠습니까. 손가락이 했다고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까.

오직 모를 뿐입니다.

눈앞에 정신적인 벽이 가로 막혀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벽을 놓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면벽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그 일을 알고 해야 합니다.

이 몸을 끌고 다닐 때 ‘이 뭇고’ 합니까. 스스로 끌고 다니는 놈이 ‘뭇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단의 일을 모를 뿐입니다. 깨닫던지 모르던지. 아니면 영겨주춤 할 뿐입니다. 알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그냥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무엇이 마음입니까. 모를 뿐입니다. 그것 몰라서 알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 마음 찾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알려고 할수록 공금증이 일어납니다. 계속 공금해야 합니다.

문제를 외운다던지해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답만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번 보고 느꼈습니다. 단지 답을 모를 뿐입니다. 어떠한 그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냥 갑갑할 뿐입니다.

그것도 인연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인연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단의 일에 대해 알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손가락이 내가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소홀로 된 쥐를 마련해 놓고 쥐를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뻥뻥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장치에 여러번을 밀어 넣어드려야 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할 적에 무엇인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된 것만 의심할 뿐, 의심 단계에서 펼쳐지는 것은 망상으로 내려두십시오.

그동안에 듣고 있던 화두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4박 5일간에는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간화선 실참 동참자 인터뷰

피터 그레고리 교수

“향후 연구에 도움될 것”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는 이번 간화선 실참에 대해 “화두를 몰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고, 향후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그레고리 교수는 “수년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있을 때 잠시 벽을 느꼈다. 그 벽을 넘는 그 경계에서 깨어나 아쉽다. 다른 세계로 나갔거나 죽어 나갔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

“매순간 깨어있어야 한다”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 역시 이번 간화선 실참이 처음이다. 보름 전 아버님을 여읜 후 참여한 간화선 실참. 김 교수는 이번 실참을 통해 삶의 해답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화두는 자신이 간절함을 느껴야 하고, 스님이 주신 화두와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함이었다”며 실참 소회를 밝혔다.



김기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함께 깨닫는 것 중요”

김기자(테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전통을 알리고 있는 중앙무용·연극의 권위자다. 김 교수는 “이번 간화선 실참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진리의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혼자 느끼지 않고 다른 이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성을 느꼈다. 이것이 ‘대자대비’라고 생각한다”며 화두에 대한 물음에 답했다.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불교가 살아있는 자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입재 이후 바로 20여 년 간 불교를 공부했는데 ‘이 화두를 못 풀면 내가 이것을 공부했구나’는 당혹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번 실참을 통해 지난 공부를 되돌아보게 됐다”며 “불교에 있어 죽은 공부가 아닌 산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함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함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불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데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자발 밑에서도 흥왕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자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몰라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사라하는 금강삼고저는 금

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강,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머빌리티, 목회관, 다방, 장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인형, 박물관,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방구, 인형, 장, 신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국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1일~9월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1일~9월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랩,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 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